

커지는 혁신론... 더 커지는 신당론

野 3선 의원 간담회서 당원소환제 등 3차 혁신안 성토

당원 100명 탈당 속 천정배 신당론 확산 등 '내외외환'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의 여진이 확산되면서 신당론의 불길이 계속 번지는 '내외외환'에 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총이당원', '유령당원'의 폐해를 없애고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철폐하기 위해 당원 및 대의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 방안도 제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3차 혁신안에 따르면 당원·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는 새로 설치되는 당무감사원(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에서 맡고 상시적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혁신안은 당비 결제 시 무통장 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2차 혁신안 중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 것과 관련, 당 대표 권한을 비대화한다는 비주류의 반발이 제기되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로 보완했다.

하지만 연이은 혁신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당내 반발은 물론 신당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한 3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쇄신안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총장 폐지 등은 전당원 투표라도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며 열을 만나 중앙위에서 의결해 달라는 건 무리"라며 "당의 헌법을 바꿀 권한까지 위원회에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중도를 포용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퇴진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오히려 당내 반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밖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보복을 받으면서 신당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날 100여 명의 당원 등이 탈당하면서 천 의원의 신당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당파들에 대해 "사전에 접촉한 적 없다"면서도 "새정치연합으로서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는 저와 공통점이 있다.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중 평화 마라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오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 마라톤 6.15 서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출발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협뉴스

국회 상임위,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

與 "원안처리" 野 "삭감" 맞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여당은 11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 원안 처리를, 야당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통째로 삭감한 6조2000억원 규모로 축소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추

경 규모를 최대화하여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여당의 입장과 불필요한 곳까지 '퍼주기식'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열어 추경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논의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연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16일과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 이를 동안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한다. 여야는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추경안은 23일이나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련은 나의 힘...정권교체 더 매진”

박지원 의원 인터뷰

정치 일생의 최대 위기를 가져온 예상 밖의 항소심 결과에도 박지원 의원은 담담하고 의연했다.

1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오히려 '시련은 나의 힘'이라고 강조하며 정권교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당혹스럽고 황당했다. 1심 판결에서 제시된 명확한 증거가 외면됐다. 같은 사람의 진술에 대해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현직 경찰 총경 앞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지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역구 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잘 봐주겠다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닌가.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았나.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제일 생각났다. 제가 DJ의 철학과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련도 뒤를 잇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련의 극복도 반드시 그분의 뒤를 잇겠다. 문재인 대표가 전화해 '짜 맞추기 재판'이라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더라. 당에서는 사정 대풍, 야당 탄압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명백한 오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가 DJ로부터 정치를 배운 사람이다. DJ는 탄압받고 시련에 직면할수록 정도를 곁었다. 이번 일로 위축되고, 할 말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박지원이 아니다. 정권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향해 더욱 굳건하게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공천 등에서 정치적 불이익이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본인이 죄를 인정했거나, 부인하더라도 현저한 불특정 증거가 있다면 정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



1심 판결 제시 증거 외면한 항소심 결과 당혹스럽다

야당 탄압·명백한 오심 정치권 단합 위기 타파해야

7년간 '금귀월래' 의정생활 상급심 진실 밝혀지길 기대

에 본인이 강력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 결과는 증거 등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내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전국의 보편적 민심은 '새정치연합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표의 대선 도전까지도 포함된다. 전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조금 다르다. 정권 교체에 절호의 기회를 분별로 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혁신을 통

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당 창당 그룹들은 정치적 명분을 쌓으며 10월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 강경 진노 세력은 탈당하러면 해라. 탈당해서 성공한 사람 없다는 식이다. 이러한 4개의 흐름을 잘 조정해서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야한다.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

-호남 정치권이 가야 할 방향은

▲민심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선비적 문제의식과 현실적 상인 감각을 살려야 한다. 각자도생은 안 된다. 공멸한다. 정권 창출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야 한다. 민심을 바탕으로 야권의 위기 타파와 정권 교체에 위해 진검승부에 나서야 한다.

-지역민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지난 7년 동안 지역 발전과 소통을 위해 '금귀월래'의 약속을 지켰다. 단 한 번도 외유에 나서지 않았다. 목표와 호남과 야당, 나아가 정권 창출을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했다. 감히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정치 일생도 부끄러움 없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한편, 박지원 의원 항소심 결과와 관련, 한기민 전 목포경찰서장은 개인적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오문철 보좌처 축은행장과 박지원 의원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하지만 그날 오 은행장은 아무것도 휴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전 서장은 "1심에서는 저와 함께 동행했던 김모씨의 증언을 들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제가 5년 전 만남을 주선하면서 통화했던 사람이 박 의원인지 보좌관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서장은 "판결에서 돈을 받았으나, 안 받았느냐는 사실 관계 규명이 중요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며 "상급심에서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대표 경선 노회찬·심상정 결선 진출

정의당 대표 경선에 노회찬 전 대표와 심상정 전 원내대표가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정의당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 전 대표가 43%의 득표율을, 심 전 원내대표가 31.2%의 득표율을 기록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밝혔다.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 기획팀장과 노회찬 전 정책위의장은 각각

17.1%와 8.7%를 얻어 3·4위에 그쳤다. 어느 후보도 1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당은 노회찬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두 명을 대상으로 13~1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경선은 일찌감치 정의당의 간판스타인 노 후보와 심 후보의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

자 '2세대 진보정치'를 내세운 조성주 후보와 국민참여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새 인물론'을 주창한 노회찬 후보가 예상 외로 약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최종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하며 임기 2년의 새 대표는 향후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진보연대 등 다른 진보 세력들과의 통합 과정을 주도하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북구청 후문 1분!

월세 인기종류 / 임대 걱정없음
신축 4층건물(총층) 13개
1층점포 4층 안집/투룸1개(올임대)
2~3층 원룸(올임대)

월수익 540만 매매가 7억 1천만

-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 (총20개) 1층상가2개,투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총20개(1층상가2개,투룸18개) 매매가1억
- ③ 북구 용봉동 (투90평,건150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원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 ① 북구 우산동 인보하이 상가건물 7층사무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억5천
-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총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원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억8천만
- ⑤ 상무지구 영안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천만
-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⑦ 광양 상아이비트15평 (상가입점지역) 매매가 4천만
-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5천5천만

010-6832-9700

법원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북구 본충동 (토 177평, 건219평)감평가 13억8천~최저가 7억7천(식당)
- 2.광안구 월계동(토42㎡, 건135㎡)감평가 2억~최저가 1억4천(점심상가)
- 3.서구 차평동 (토44.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 4.광안구 쌍안동(토99㎡, 건239평)감평가 2억5천~최저가 1억4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서구 화평동(토150㎡, 건276평)감평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남구 주월동(토71㎡, 건180평)감평가 4억5천~최저가 4억5천
- 3.서구 생촌동(토63㎡, 건148평)감평가 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운암동 (토66㎡, 건193평)감평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 2.동구 대인동 (토702㎡, 건1992.57㎡)감평가 24억7천~최저가 14억
- 3.북구 오서동(토 114㎡, 건199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공장/모텔/주유소

- 1.광안구 장덕동(공정)토474㎡, 건478평)감평가 7억1천5백~최저가 7억1천5백
- 2.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 건614평)감평가 41억~최저가 15억
- 3.서구 농성동(주유소)토246㎡, 건273평)감평가 15억7천~최저가 15억7천
- 4.광안구 쌍안동(숙박시설)토155㎡, 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 1.광안구 쌍안동(근린시설)토516㎡, 건919㎡) 1층, 사무실, 소매점, 2층~3층점식점 4층, 주방, 숙소5층, 기계실 감평가 36억~최저가 36억
- 2.북구 운암동 (근린시설)토 160㎡, 건283㎡)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나) 감평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7백
- 3.광안구 신기동(주유소) (토430㎡, 건170㎡) 상가병행 북동쪽 인근, 하남대교변 감평가 15억7천~최저가 11억
- 4.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 건602㎡)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중심) (지하사무실, 1층점포, 2층~4층사무실) 감평가24억7천~최저가14억
- 5.북구 운암동(근린시설)토66㎡, 건194㎡) (토66㎡, 건194㎡) (광안교 북쪽5층건물) 감평가 7억2천~최저가7억2천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